

보도시점 2025. 10. 2.(목)
11:00

배포 2025. 10. 2.(목) 09:30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 ① 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 ② 서비스 기업 성장, ③ K-서비스 수출확대, ④ 신서비스 출현 등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한경협,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정부에 전달
- 모바일 외국인 인증체계 개선,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한 규제개선,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경제단체가 서비스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도 조속히 정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일(목)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회의를 개최하고, 전담반 운영방향,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5.10.2일(목) 08:00~09:10 / 한국경제인협회
- (참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문체·산업부 차관, 국토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 (안건) : 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방향, ②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③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을 새롭게 구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한경협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현장 일선에서 발굴한 33가지의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현행 7개 업종으로 정의된 국내 관광산업 범위 개편,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교통망 확충, 폭발적 글로벌 K-pop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 공연장 확충, 외국인 비친화적 인증·결제환경 개선,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한경협의 정책건의 중 추진 가능한 사안들의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7개 업종으로 한정된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재편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정비한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숙박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검토하고 숙박업 진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K-Pop 공연장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고, 외국인이 쉽게 본인을 인증해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에 활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10.27일~11.1일 경주) 계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하였다.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을 구성해 주요 관광지를 점검하고,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교통·숙박·쇼핑·식음 등 외래객 불편, 친절 대응 등을 개선한다. 외래객 교통할인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험을 유도한다. 행사 이후에는 역사·문화·국제테마 수학여행지로서 경주시 상징성을 홍보하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 확대도 추진하는 등 APEC 유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경협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TF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부총리 모두발언

담당 부서 (전담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한유빈 (youbinhan@korea.kr)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b123@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박은수 (esparkable@korea.kr)
담당 부서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서기관	김자영 (044-203-2816)
		담당자	사무관	김선기 (044-203-2812)



참 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요약, 한경협)

총 33건	주요 내용
관광 인프라 제도·거버넌스 (6건)	■ 협소한 관광산업의 범위를 확대 ■ 백화점, 면세점 등을 관광특구 지원대상에 편입 ■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예치비 환급 ■ 지역 맞춤형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관광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 관광청 신설로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 간 협력·정책 기획 일원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기반 마련
관광 인프라 인프라혁신 (4건)	■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인 제공 통해 민간 주도의 대형 전문공연장 확충 ■ 민관 협력 기반 통합 외국인 관광객 인증/결제 체계 ■ 사업보고서 제출, 평가 기반 DMO 등록 갱신 등 지역 DMO의 역량 강화 ■ 신규 국제 전시회 유치 지원, 해외관광 연계 MICE 패키지 지원
숙박 (5건)	■ 여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호텔등급결정제도 개선 ■ 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개선 ■ 외국인 부가세 환급 기준 완화를 통한 호텔의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율 제고 ■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추진 ■ 도심 소형 관광호텔 건립 시, 조경 면적 확보의무 제외
교통 (5건)	■ 2030년까지 K-ETA 한시 면제 조치 실시 ■ 한중 항공 자유화(공항 슬롯만 있으면 운항가능)의 적용 범위를 확대 ■ 인바운드 거점공항 지정을 통한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 공항, KTX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간·지역내 교통망 확충 ■ 지역관광 연계·체험형 이동 버스 서비스 도입
식음 및 쇼핑 (7건)	■ 면세점 특허 수수료 산정기준(현행 매출액 기준) 변경 ■ 사후 면세점 및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 지정면세점(제주도) 구매 금액 및 횟수 제한 완화 ■ 지정면세점(제주도) 판매 물품 규제 합리화(현행 15개 품목)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및 슈퍼 의무휴업 예외 적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음식점업 요건(직무범위, 업력 등) 완화 ■ 외래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 복권 제도' 도입
콘텐츠 및 체험 (6건)	■ 관광체험업 신설을 통한 지역관광 체험 다양화 ■ 지방 고부가 관광 콘텐츠 모델 육성 ■ K-Culture를 활용한 AI 가상 가이드 ■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 지원 ■ 웰니스·트래킹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확충 ■ 국내 야간관광 콘텐츠의 접근성, 경쟁력 제고